

어린이 대형 드로잉 프로젝트

<THIS IS ME : 나를 그리는 시간>

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

커다란 종이 위에 몸 라인을 그리고,
내가 좋아하는 것과 행복한 순간,
마음의 색을 자유롭게 채워보는
자기표현 미술놀이예요.

- 1 몸 라인
따라 그리기



- 2 좋아하는 것
떠올리기



- 3 색과 선으로
자유롭게 채우기



정답보다 표현의 과정이
더 중요해요.



어린이 대형 드로잉 프로젝트

<THIS IS ME : 나를 그리는 시간>

준비물과 활동 과정

1 준비물

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해요!



- 큰 종이
(롤지, 전지, 도화지
여러 장 연결)



- 크레용, 사인펜,
색연필, 물감(선택)



- 스티커, 색종이,
잡지 그림(선택)



- 테이프, 물티슈
또는 닦을 수건

2 활동 과정

천천히, 아이의 속도로 즐겨요!

1



큰 종이를
바닥에 펼쳐요.

2



아이가 편한 자세로
눕거나 기대고, 친구 또는
보호자가 몸 라인을
따라 그려요.

3



‘나를 행복하게
하는 것들’을
함께 떠올려요.

4



몸 안과 바깥을
색, 선, 그림으로
자유롭게 채워요.

어린이 대형 드로잉 프로젝트

<THIS IS ME : 나를 그리는 시간>

이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

1 잘 그리는 것보다
스스로 선택하는 것

무엇을 그리고 싶은지,
어떤 색을 쓰고 싶은지
아이가 직접 고르는 과정이
가장 중요해요.

2 정답보다
표현의 과정

사람을 예쁘게 완성하는 것이
목표가 아니라, 아이 마음을
자유롭게 펼쳐보는 시간이
되면 좋아요.

3 비교하지 않고
각자의 방식 존중하기

친구와 다르게 그려도 괜찮아요.
많이 채워도, 조금만 그려도
모두 자기만의 표현이에요.

4 어른은 평가보다
관찰과 공감

‘이 색을 많이 썼네.’
‘여기가 아주 크구나.’ 처럼
아이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
바라봐 주세요.



5 몸을 쓰는 자세도 자유롭게

바닥에 앉아서, 엎드려서, 무릎을 꿇고,
몸을 움직이며 크게 그려도 좋아요.
편안한 자세가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
도와줘요.



이렇게 말해보세요

‘네가 좋아하는 것들이
많이 들어 있네.’

이 부분은 어떤 마음일까?

이 색을 고른 이유가 있구나!



<THIS IS ME : 나를 그리는 시간>

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것

1 내 몸의 크기와 형태를 느껴보기

종이 위에 옮겨진 몸선을 보며 '나'의 크기와 모양을 새롭게 만나요.



2 큰 화면을 움직이며 그리기

작은 종이와는 다르게 몸 전체를 쓰며 선을 굵고 색을 넓게 펼쳐보는 경험을 해요.



3 좋아하는 것과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하기

내가 좋아하는 사람, 장소, 놀이, 색을 떠올리며 지금의 마음을 색과 선, 무늬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요.



4 함께 그려주고 기다리며 교감하기

친구나 보호자가 몸 라인을 따라 그려주고, 아이가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서로 교감하고 인내심도 길려요.



5 서로 다른 표현을 존중하기

친구의 그림을 보며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경험해요.



6 완성보다 몰입의 즐거움 느끼기

끝까지 채우는 것보다 그리는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경험이 더 중요해요.



아이마다 결과가 모두 달라도 괜찮아요

많이 그려도, 비워 두어도, 추상적으로 색만 채워도 모두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.

